

# “청년 어부 지원” 신안군 임대어선사업 전국 확대

### 국가시책 채택 국비 38억 반영...어업인 215명 101척 신청

신안군이 청년 어부들을 돕기 위해 추진한 '어선임대사업' 국가시책으로 채택됐다. 정부가 사업의 성과를 인정,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신안군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에 어선 구입 임대사업 국비 38억원이 반영됐다. '어선 임대사업'은 신안군이 민선 7기에 들어서 전국 최초로 박우량 군수의 수산정책이다.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자본 여건상 어려웠던 청년 어부들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신안군은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단법인 신안군어선업육성협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국비 27억원을 투입, 8척의 어선을 임대 운영 중이다. 임대어선은 흑산 4척, 비금·중도·도초·하의면에 각 1척이 도입 중이다. 어업에 필요한 어선·어구를 신안군이 구입해 어업인에게 연간 사업비의 0.5%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다. 어업인들이 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면 소유권을 넘겨줄 계획이다. 신안군은 최근 수요조사에 215명의 어업인이 101척의 어선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더 많은 청년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이 사업이 청년 어업인 육성을 통한 수산업 발전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신안군은 전했다. 신안군은 앞서 이 사업을 정부 시책사업으로 도입해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박우량 군수는 "청년들이 섬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올려 모두가 잘사는 신안건설이 목표이며 천사100호까지 탄생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신안군이 청년 어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어선 임대 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채택됐다. 임대 어선인 '천사5호'. <신안군 제공>

## 진도군 '코로나 블루' 현장 심리지원 키트 배포

### 119안전센터·경찰서 등에

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증 조기 회복을 위해 비대면 마음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감염병 감염 우려, 사회적 고립, 외출 자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진도군은 '코로나 블루' 극복과 정서 안정을 위해 '심리 지원 키트'를 제작, 배포했다. 심리 지원 키트는 코로나19 현장대응요원, 경찰서, 진도119안전센터 관계자 250여 명에 배부됐다. 키트는 손 세정제와 면역력 향상을 위한 비타민, 마음 해이로 노트, 파스, 핸드크림 등으로 구성됐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유행 때에는 누구나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며 "진도군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나 24시간 핫라인으로 운영되는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정보 교류·화합의 공간 무안 '도리포 어업인회관' 준공

무안군은 최근 해제면 송서리 도리포항에 4억원 들어 연면적 170㎡, 지상 2층 규모의 '도리포 어업인회관'을 준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번엔 신축한 어업인회관은 도리포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정보 교류와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리포는 전국 최고 품질의 김 생산지이며 낙지, 송어, 민어 등 다양한 수산물에 유명하다. 칠산대교가 개통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어업인회관 신축에 이어 어업인과 방문객의 직거래를 위해 60㎡ 규모의 어부장터를 회관 인근에 신축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도 지역 어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완도 군외~약산 '산림해양 치유길' 열렸다

### 달도~완도대교~명사십리~약산대교~당목항 58km 1단계 완료 국내 최대 난대림·산소 음이온 대도시의 50배 ... 2·3단계도 추진

완도군이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 많은 '산림해양 치유길' 1단계 58km 구간을 마무리했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숲과 바다, 섬이 어우러진 완도만의 독특한 산림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한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1차 사업이 완료됐다. 트레킹코스 조성 사업은 군민·관광객에게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부터 3년간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특히 완도군 12개 읍·면의 아름다운 산림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숲길, 마을길, 도심길 등 다양한 유형의 코스로 조성한다. 사업이 끝난 1단계 구간은 완도읍과 군외면, 신

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 5개 읍·면이다. 주요 구간은 군외면 달도(망피산) 약에서 시작해 완도대교-수목원 수변쉼터-상왕봉 삼거리-초개산-서망산-완도타워-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장보고대교 하단-약산대교-가사동백해변-당목항에서 끝나는 총 58.6km다. 이 구간에는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과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 많은 명사십리해수욕장,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이 있다. 완도군은 2단계 금일읍·금당면·생일면·청산면 구간과 3단계는 노화읍·소안면·보길면 구간의 트레킹코스도 개발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은 군외면에서 약산도까지 '섬자리 숲길' 1단계 58km 구간 조성을 마무리했다. <완도군 제공>

## 기자 노트

### 수익형 호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박종배 제2사회부 부장

목포 구도심에 객실수 500개가 넘는 전남 최대 비즈니스호텔이 들어선다. 목포시 상락동1가에 건립하는 R호텔은 '수익형 호텔'이다. 10년 임대를 보장해 호텔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연 9%인 최저 월 81만원의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객실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익형 호텔은 분양자를 모집해 호텔을 건립하는 까닭에 '분양형 호텔'이라고도 한다. 객실 하나하나를 개인에게 아파트나 오피스텔 팔 듯이 분양하고, 개인이 해당 객실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후 호텔 운영 수익의 일부를 주주 배당처럼 분양자가 나눠받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려도 크다. 분양형 호텔의 폐단이 전국 각지에서 불거져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측이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확정 수익금'을 내세워 분양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많은 데서 비롯된다.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아 호텔 분양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착공 이후 수년째 공사 중인 현장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분양형 호텔 125개 중 1곳을 제외하고 124곳이 법적 분쟁 중이었다. 분양형 호텔의 근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법적 분쟁의 대부분은 호텔의 영업 부진이나 고의 파산 등으로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수익금 반환소송'이다. 계약서에 수익금이 명시돼 있고 도장을 찍었으니 승소 판결을 받

만, 수익금을 챙기는 사례는 거의 없다. 판결을 근거로 압류나 추심을 하려해도 대부분 운영법인이 '깡통'이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웠던 탓에 투자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무리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데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분양형 호텔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관이나 모텔 같은 일반 숙박 시설 위생관리 등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수익 배분 문제나 그로 인한 법적 공방 등에 전문성이 떨어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형 호텔 건립이 관광호텔보다 더 탄력받고 있다. 투자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건립하면 되기 때문이다"면서 "하지만, 수익원을 투자해 분양을 받은 호텔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투자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분양형 호텔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고 꼼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목포에 들어서려는 분양형 호텔 역시 마찬가지다. 목포에서도 분양형 호텔 건립이 좌초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목포시 동명동 해안가에 8층 172개 객실 규모의 수익형 호텔이 착공 예정이었지만 미분양돼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목포지역 분양형 호텔이 사업자의 약속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소송 등 법적 공방이 난무하는 애플단지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pjb@kwangju.co.kr

## 허균, 불의 향기

이진 장편소설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저자 이진